

금융·경제 분리...농협 어떻게 바뀌나

# 교육·지원→유통·판매 전환 전남 농산물 전국 판매 확대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농협 역할 변화 불가피

농협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50년 동안 유지됐던 연합회 체제의 농협은 '1연합회,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농협은 내년 3월2일부터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은행·보험 등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된다. 중앙회는 교육과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농협 조직이 개편되면 전국 농산물의 25% 가량을 생산하는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망인 농협이 유통과 판매를 책임진다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좋은 전남 농산물의 전국 판매가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경제사업 중심인 농협 전남본부와 신용사업 중심인 농협 광주본부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협이 돈벌이인 신용사업에만 치중해 농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업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어떻게 추진되나=앞으로 설립될 경제지주는 독립

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유통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중앙회의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돼 재원 운영 및 인력구조도 이에 맞게 변경된다.

현재 중앙회는 은행업 등 신용사업에 인력과 재원을 대부분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인력 76%가 신용사업부문에 배치돼 있고, 경제사업부분은 14%에 불과했다.

또 경제사업은 회원조합을 지도·지원사업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판매는 회원조합이 담당하고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농산물 유통사업의 위험과 손실을 회원조합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농축산물 유통에 중앙회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에게는 생산 농축산물의 판로를 보장하게 된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조합출하액 가운데 중앙회 판매액은 31.1%에 불과했으나 경제지주가 출범하면 2013년 34.3%, 2015년엔 56.7%, 2020년엔 68.8%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지주가 설립될으로써 협동조합적 소유와 사업경영의 분리도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는 대표이사별로 개별 자회사를 관리하고 지도와 사업적 기능이 혼재돼 있으나 농협조직이 개편되면 장기적으로 중앙회는 교육·지도사업을 수행하고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은 지주회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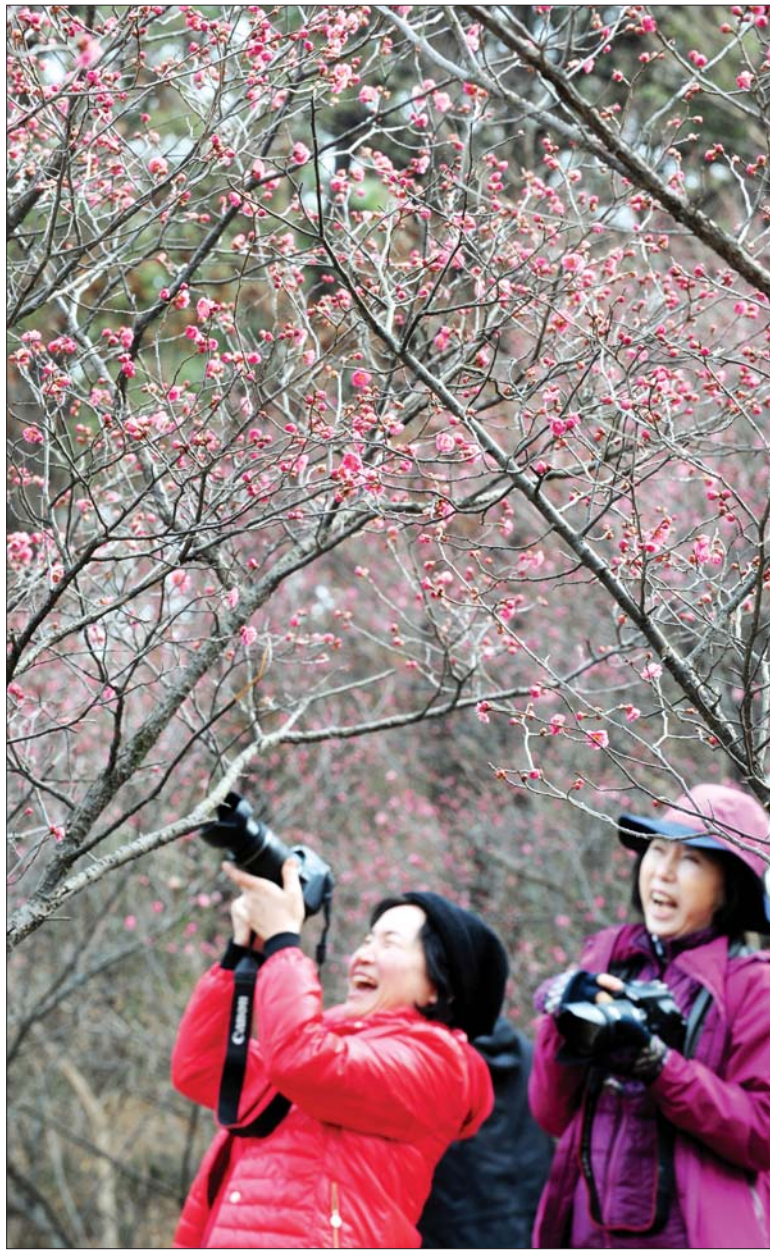
◇새로 탄생할 금융지주 어떤 모습인가=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를 아우르게 되며 NH카드도 별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의 총자산은 국민(275조원), 우리(247조원), 신한(238조원)에 이어 193조원으로 4위에 해당돼 앞으로 자산 200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지주가 탄생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일반은행업무 외에 조합 및 중앙회 자금 지원, 농업자금대출 등 농업금융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농협금융지주는 농업금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장 관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봄이 피었네 경치를 담은 6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 '봄의 전령' 흥매회가 꽃망울을 터트린 가운데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흥매회를 카메라에 담으며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문화콘텐츠연구원 광주설립 속도

장병완의원, 문광부장관 만나 반영 약속 받아내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4월 수립하게 될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 CT연구원의 적극 반영을 약속한 데 이어 5월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현황 보고에서 정병국 장관으로부터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 CT연구원 설립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4월에는 부처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CT연구원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며 "CT연구원이 조속히 설립되어 콘텐츠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CT연구원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학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도 오는 5월

계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6일 "지난해 말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화산업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농업 기여도 낮을때 예산·인사 불이익”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장 최인기 의원

1년 넘게 논란이 지속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농협 구조개혁의 발판이 될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장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94년 제46대 농림부장관 시절, 농협을 신용 및 경제 본부로 나누는 등 구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최종 매듭짓는 절친인 셈이다.

지난 4일 오후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장실에서 최인기 위원장과 농협법 개정안의 의미와 전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농협의 구조 개혁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설립 50년 만에 농협의 주요 책무가 교육과 지원 등에서 농산물 판매 및 유통 중심으로 전환되게 됐다. 특히, 농협은 앞으로 수익은 물론 농민에 대한 기여도 등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농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번 개정안으로 농협은 2012년

부터 신용지주, 경제지주, 농협중앙회 등으로 분리된다. 우선, 경제지주는 기존의 자회사를 관리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분야를 단계별로 이전받는다.

기존의 농협중앙회는 2017년까지 지역 단위조합이 추진하는 판매 및 유통 업무를 집중 지원하고 2017년 이후에는 교육,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농협 금융지주는 농협 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농협이 농산물 판매 및 유통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판로 확보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판매·유통 분야의 활성화 대책은.

▲농협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18조 원 가운데 30% 이상인 5조4000억원을 경제사업부분 자본금으로 배분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확답을 받아낸 상태다. 이 정도면 경제사업 분야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전남 농업에 미치는 효과는.

▲전남은 전국 농산물의 25% 가량을 생산한다. 따라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 당장, 농협이 유통 및 판매에 중점을 두면서 나주 배, 무안 양파 등 지역의 각종 특산물의 전국적인 판매가 확



산될 것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적인 무상급식 정책에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접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지주회사 출범으로 수익이 최우선되면서 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상법상의 지주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기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실제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농협 중앙회, 단위 농협에서는 농민에 대한 기여도 등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기관들은 각종 지원과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소회는.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이익이라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농민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 농협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농협 개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JINRO

나, 이런 사람이야~  
참이슬 마셔~

참이슬 한잔 더 하자!

참이슬 情나눔 2억원 조성 (광주 전남지역)

Let's UP! 참이슬

사랑의열매 (주)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합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금융회사 변모...농민위한 농협 포기”

농협법 개정 농민단체·농협노조 반발...전농 폐기투쟁 선언

농협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농민단체와 농협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농협이 돈벌이인 신용사업에만 치중해 농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안 폐기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쌀값 하락과 구제역, 각종 FTA 추진으로 피해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 전남도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금융지주사 중심의 개혁은 농협 재산과 협동조합 정신을 투기자본에게 팔아먹는 행위”라며 “특히 한미

FTA 등을 앞두고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터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노조 고성신 본부장은 “농협이 신용과 경제로 분리되면 직원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농협 체제에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